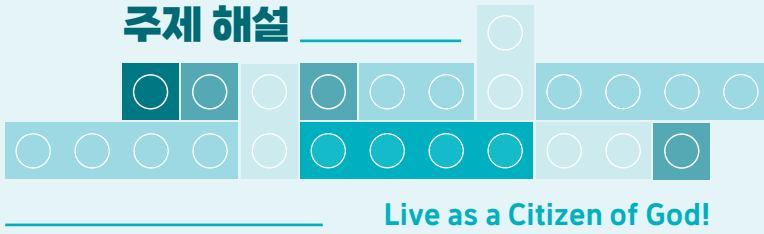


주제 해설



공부 잘하는 약?

다음의 세 문장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추측해 보라.

1.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2. 이것은 만 18세 사이에서 매년 10-11월마다 처방이 크게 늘어난다.
3. 이것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에서 많이 처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ADHD’ 약이다.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질병의 약자다.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학습이나 기타 활동을 할 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맥락 없이 말을 끊거나, 자신의 순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갑자기 끼어들기도 한다. 때로는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ADHD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이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데 있다. ADHD 약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니 약을 복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 시간을 늘려 결국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욕구가 약의 복용으로까지 이어진 현상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면 치료 목적의 약도 복용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영유 금지법?

2025년, 한창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영유 금지법’은 또 어떤가? 영유 금지법은 ‘영어유치원 금지법’의 약자다. 2025년 7월에 발의된 이 법안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영어 등 교과 연계 교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에게는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영어유치원의 교습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영어학원은 820곳이었다. 적지 않은 수의 영어학원에서 유아들이 4시간 이상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이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도 배운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놀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를 통해 세상을 알아 가고 배워 가야 하는 유아들이 학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영어유치원에 들어가려면 레벨 테스트, 이른바 ‘4세 고시’를 통과해야 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며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 “왜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가?”, “한창 뛰어놀아야 할 유아들에게 왜 영어 공부를 강요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성공’ 때문이 아닐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공과 출세를 향한 욕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약을 먹으면서까지 공부 시간을 늘리고, 4세 고시를 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2024년 4월, 국내의 한 대형 은행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전국의 만 20-64세 인구 10,000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 중에는 세대별로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을 묻는 항목이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세대에서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위가 ‘연봉’이었고, 2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었다.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는 엄청났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 만큼 돈이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대별 직장 선택 시 고려 요인(경제활동자, 상위 5위)¹⁾

	연봉	위라벨	복지	회사의 비전	개인 성장성
Z세대 (20-28세)	48%	26%	10%	6%	6%
M세대 (29-43세)	49%	25%	7%	7%	5%
X세대 (44-58세)	51%	19%	11%	8%	5%
베이비부머 세대 (59-64세)	42%	16%	17%	10%	3%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의 성인 남녀 18,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도 이와 결을 같이한다. 설문 항목 가운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What Makes Life Meaningful?)에 대한 답으로, G7 국가 및 전체 조사 대상 1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았다. 다수의 국가가 1순위로 ‘가족’을 꼽은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한국 및 G7 국가, 상위 3위)²⁾

	1위	2위	3위
대한민국	물질적 풍요	건강	가족
프랑스	가족	직업	건강
캐나다	가족	직업	물질적 풍요
일본	가족	물질적 풍요	직업
영국	가족	친구	취미
미국	가족	친구	물질적 풍요
독일	가족	직업/건강	
이탈리아	가족/직업		물질적 풍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동료들이 있는지가 아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연봉이 최우선이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가족이나 직업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1)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2024.4.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 이메일 조사, 2023.10.-11.)

2) Pew Research Center,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2021.11.18. (17개 경제 선진국 성인 남녀 18,850명, 전화/온라인 조사, 2021.2.-5.)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리고 큰돈을 벌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인 것처럼 느껴진다.

크리스천은 어떤가?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떤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성공주의나 물질주의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서 언급된 설문 조사 결과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2024년, 기독교인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무려 개신교인 81.1%, 목회자 90.7%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응답했다. 또 교인의 70.1%, 목회자의 82.9%는 앞으로 세속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교인들은 ‘교회 세속화’(30.9%)를 1위로 꼽았고, 비기독교인 역시 무종교인이 증가하는 이유로 ‘세속화의 심화’(37.3%)를 지목했다. 그리고 89.6%의 목회자가 한국교회가 세속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높은 비율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속화’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세속화의 뜻을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거기에 물들어 감”이라고 정의한다. 풍속은 옛날부터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온 사람들의 습관과 인식을 말한다. 즉, 세속화란 세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종교인의 눈에도 크리스천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가치관에 큰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쳐다는 것이다.

세속화되는 이유? 정체성 상실!

왜 크리스천들은 세속화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삶에 걸맞은 모습을 찾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 백성에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 주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쿠트’(מלכות)의 원어적 의미가 ‘통치’, ‘보좌’를 뜻하고,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여호와가 왕이시며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삿 8:23, 시 22:28, 93:1, 96:10), 그 뜻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βασιλεία)의 원어적 의미도 ‘통치’, ‘영역’을 포함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갈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Already but not yet!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가르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예수님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위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 나라가 그들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는 이

개념을 그의 저서 『성경신학』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already) 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not yet) 완성된다고 정리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다(마 4:17). 또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마 5:3, 막 1:15, 눅 11:2)과 바울의 가르침(행 19:8, 28:23)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포하는 중요성과 달리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이 약해졌다.

이런 이유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정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그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아래의 세 가지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예요(요 3:1-5)

2과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예요(막 10:17-25)

3과 충성하며 살아요(눅 19:11-27)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려고 한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길 원한다. 과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원한다. 이를 통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음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축복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